

어학연수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나_원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벤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파견기간	2017.03~2017.06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i>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p> <p>컬리지 위치는 좋아요. 통학하는데 버스랑 근처에 스카이 트레인 역이 있어 용이해요. 그리고 다운타운까지도 스카이 트레인으로 20분 거리라 가까워요. 대학 시설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도서관도 크고 공부하기 환경이 좋아요.</p>
수업	<p><i>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p> <p>수업은 leap 프로그램이라고 국제 학생들과 함께 듣습니다. 주로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학생들이 많아요. 이 친구들은 거의 대학으로 transfer 하려고 합니다. 수업은 리딩, 리스닝, 라이팅을 주로 다룹니다. 스피킹은 수업이 파트너와 대화를 통해 진행되는 방식이어서 따로 다루진 않습니다. 저는 leap 3,4를 들었는데 립쓰리 때 매주 리딩, 리스닝, 라이팅 시험이 있습니다. 매주 있어서 비중은 작아요. 파이널 시험이 총합에서 비중이 가장 큼니다. Leap 2까지는 액티비티가 있지만 leap 3 부터는 아카데미 위주로 좀 더 학구적입니다. 그리고 대학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보니 라이팅에 더 중점적입니다. 한 세션당 팀 프로젝트가 두 번씩 있는데 립 쓰리때는 포스터만 만들었지만, 립 포에서는 ppt도 썼습니다. Leap 프로그램은 수업시간 4시간에 쉬는 시간 총 20분으로 좀 빠셴 편이고, 숙제가 많아요. 선생님들 마다 할당량이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보통 랑가라 학생들은 숙제에 하루 평균 2~3시간 씩 투자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양이 많아요.</p>
프로그램 운영	<p><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 <i>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i></p> <p>세션 시작 이틀 전에 레벨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날 leap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과 홈스테이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레벨 테스트는 리딩, 리스닝, 라이팅, 스피킹 다 보고 하루에 걸쳐 진행됩니다. 오리엔테이션</p>

	때 버스카드, 마트 어디가 더 저렴한지 등 팁도 알려줍니다. 수업 외에 동아리 활동, 액티비티나 현지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면 학교생활을 즐기고 싶다면 IE 오피스가서 신청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학교생활에 벅차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i>현지 기후 및 유의점</i></p> <p>일단 밴쿠버는 레인쿠버라 불리는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 도시입니다. 7,8월만 거의 비가 안오고 날씨가 맑아 좋아요. 저는 6월까지 있었는데, 처음 밴쿠버 도착했을 때 3월이었지만 춥고 비가 많이 왔어요. 한 4월까지의 비가 자주 왔고, 5월부터 비가 거의 안온 것 같네요. 밴쿠버는 비가 오면 기온이 푹 떨어지고 추워요. 으슬으슬하게 춥고 습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가 맑은 날은 밖에 돌아다니기 좋고 너무 덥지도 않아요.</p>
안전	<p><i>현지 안전 상황</i></p> <p>밴쿠버는 안전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홈리스들은 다운타운 외에는 별로 없고 경찰들도 있습니다. 밤 늦게 다운타운에 돌아다녀도 사람도 많아서 위험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이나타운쪽은 마약 중독자들이 많아서 위험해요.</p>
숙소	<p><i>학교기숙사() 홈스테이 (0) 외부 숙소() 기타()</i></p> <p><i>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i></p> <p>홈스테이도 나쁘지 않지만,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친절하셨습니다. 캐나다도 인종이 다양한 국가라 홈스테이 가정도 유럽계, 아시안계 등 다양합니다. 캐나다 집들은 나무로 지어져서 방음이 잘 안되서 집 안 소음이 잘 들려요.. 그리고 홈스테이에 보통 다른 나라 룸메이트가 있습니다. 저는 일본인 룸메이트가 있었어요.</p>
식사	<p><i>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0)</i></p> <p><i>외부식당 () 직접 요리 () 기타 ()</i></p> <p><i>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i></p> <p>아침은 보통 씨리얼, 빵 등 알아서 챙겨먹는데, 냉장고나 선반에 다 있어요. 점심은 샌드위치로 싸주셨습니다. 저녁도 거의 요리해주셔서 항상 집에서 먹었어요. 집밥이 지겨워졌을 쯤에는 금요일이나 주말에 다운타운이나 메트로타운 쪽에서 외식했습니다. 다운타운에는 한식당도 많아요.</p>
교통	<p><i>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i></p> <p>밴쿠버 대중교통은 버스, 스카이트레인 2가지로 나뉩니다. 스카이</p>

	<p>트레인은 지상철, 지하철이에요. 컴퍼스 카드를 구입하면 버스, 스카이 트레인 상관 없이 막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저는 학교랑 집이랑 좀 멀고 주말에도 자주 나가서 둘 다 탈 일이 많아서 거의 MONTHLY PASS를 끊어서 이용했어요. 자주 이용할 일이 없으면 그냥 충전해서 쓰는게 더 이득입니다. 학교가는 버스는 49번이고, 스카이 트레인은 사람들이 보통 두가지 노선을 이용하는데 하나는 엑스포라인이고 다른 하나는 캐나다 라인입니다. 엑스포라인은 주로 다운타운 쪽을 지나는 노선이고, 캐나다 라인은 공항부터 다운타운까지 연결된 노선입니다. 랑가라 컬리지는 캐나다 라인에 역이 있어요.</p>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대한항공 왕복 약 80만원
Fees	<p>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 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p>	
보험료	<p>자매대학에서 원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p>	한화 다이렉트 해외장기체류 보험 17만원
숙소		홈스테이 비용 : 약 70만원*4=280
식비		
교통비		MONTHLY PASS : CAD \$91*3=273
책값		CAD \$10*3=30
기타1		한달에 용돈 약 50
합계		수업료 합쳐서 4달동안 약 800

5. 출국 전 준비사항

<p><i>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i></p> <p>일단 공산품이나 물건은 캐나다에 비해 우리나라가 질이 훨씬 좋아요. 학용품이나 굳이 캐나다에서 안 사도 될 물건들은 미리 한국에서 구입해서 가는 게 더 싸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옷도 특히, 디자인이나 가격이 우리나라가 더 나아요. 1학기때 가신다면</p>

날씨가 반팔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고 봄, 가을 옷정도?가 나올 것 같네요. 날씨가 초반에는 아직 추워서 겨울 옷이 좀 필요한데, 봄 되고 나면 큰 변동이 없어서 여름옷이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보험도 미리 한국에서 하시는 게 현지에서 하는 것보다 더 싼 것 같고, 핸드폰 유심 한국에서 해 오세요. 현지에서 하면 더 비싸고, 한국에서 하는 것이 더 싸고 혜택이 많습니다. 현금은 환전 해 온 것 다 쓰고 나면 그냥 현지 ATM에서 뽑아 쓰면 됩니다. 한번 뽑을 때마다 수수료 \$3달러예요. 한번에 많이 뽑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운타운에 한인마트, H마트가 있는데 물건들 비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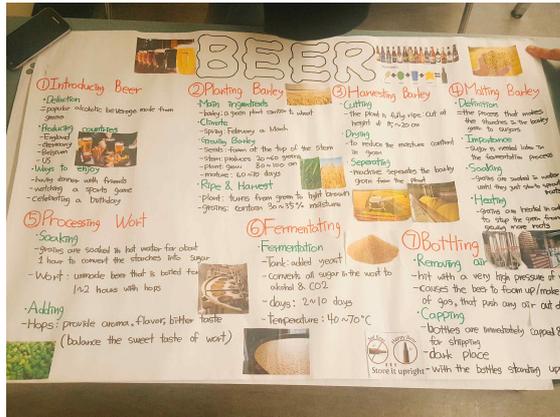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원래는 스피킹 실력을 많이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랑가라 컬리지에 왔지만, 라이팅 중심의 커리큘럼에 처음엔 실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학습 시스템에 적응되었고, 제 자신의 스피킹 실력도 처음보다 늘어가는 모습에 만족스러웠습니다. 리스닝, 스피킹이 개인적으로 예전보다 발전된 것 같습니다. 스피킹 실력이 4개월만에 일취월장 수준으로 늘진 않았지만 서서히 나아지는 것에 좀 더 캐나다에 머물고 이어서 영어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랑가라 컬리지는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도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고 서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주제로, 한국에 관심 많은 친구들과도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회화를 좀 더 빠르게 늘리고 싶다면 많은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주말에 밴쿠버 이곳 저곳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평일엔 학업에 바쁘지만, 주말까지 할애할 정도로 립 프로그램이 힘들진 않아서 주말엔 쉬면서 밴쿠버 생활을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밴쿠버엔 은근 가볼 만한 곳이 많고, 날 좋으면 돌아다닐 만한 자연 환경(?)이 정말 좋아요. 아 그리고 캐나다에 온 김에 캐나다 동부 쪽이나 미국여행을 추천합니다. 한국에서 가는 것보다 비행기 값이 훨씬 싸니 이왕 온 김에 여행하는 것이 이득인 것 같아요. 한 세션 끝나고 다음 세션 시작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 방학이 있는데, 그 때 시애틀 갔다 오는 것이 가까워서 좋습니다. 저는 시애틀도 다녀왔고, 두 세션 완전히 끝난 후 미국 서부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미국 서부가 오히려 캐나다 동부 쪽보다 비행기 값이 좀 더 싸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캐나다 내에선 빅토리아 여행, 로키 산맥 투어 추천해드려요.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팀 프로젝트 포스터 만들기



시애틀 야경



게스타운 증기시계



잉글리쉬 베이



딤 코브



나이트 마켓